



2020년 법무사시험

민법(1차) 총평

1. 출제부분 (괄호 안은 2019년 기출상황)

- ① 민법총칙 8문제(10문제), 물권법 12문제(10문제), 채권총론 10문제(8문제), 채권각론 4문제(7문제), 친족법 3문제(3문제), 상속법 3문제(2문제),
- ② 조문 문제 16지문(주로 친족법 문제에 집중됨), 판례 문제 184지문(작년과 비슷),
- ③ 사례형 문제 0문제(5문제), 박스형 문제 0문제(1문제)

2. 출제분량

10쪽 1/4(작년과 동일).

3. 출제경향 분석

- ① 2020년 법무사 1차 민법 시험은 2019년과 비교할 때 출제분량과 판례의 비중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즉, 전체 판례 지문은 184지문으로 작년과 비슷하게 출제되었고, 2015년~2019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 지문은 총 27개 출제되었습니다. 역시 법무사시험에서는 판례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
- ② 그런데 올해에는 2020년 최신 판례는 출제되지 않았고, 또한 사례형 문제 문제와 박스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. 반면, 작년에는 사례형과 박스형 문제가 총 6개 출제되었는데 모두 난이도가 '上'이었다는 점에서 올해 시험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.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의 민법 평균 점수는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③ 따라서 올해에는 합격 가능한 수험생들의 민법 점수가 30개 초반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만, 본 강사의 「조문·판례 중심 민법강의 cafe」 교재로 꾸준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35개 정도는 득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, 올해에도 2014년~2018년 법원행시·법원사무관·법원서기보·법원주사보·법무사시험에서 이미 기출된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되었으므로 본 강사와 함께 공부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고득점하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
- ④ 결론적으로, 2020년 법무사 민법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계속 하락하고 있는 법무사 1차

시험의 커트라인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시간이 늘었음에도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절하였다는 점입니다. 이러한 유형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4. 커트라인 예상 : 작년 기준으로 민법은 +5개로 예상

올해 민법시험의 합격선은 작년보다 5문제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5. 2021년 시험대비 민법 공부방향

- ① 2020년 법무사 민법시험도 역시 법무사시험의 핵심은 조문과 판례에 대한 충실한 숙지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준 시험이었습니다. 다시 말해, 기본적으로 민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,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민법판례의 체계적 정리 및 이해가 법무사시험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. 특히 올해에도 판례의 사실관계가 세밀하게 출제되었다는 점에서, 본 강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처럼 더 이상 ‘키워드 중심의 요약식 판례공부’를 통해서도 법무사 2차 민법은 말할 것도 없고 법무사 1차 민법시험조차 통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.
- ② 따라서, 2021년 법무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법무사시험 출제경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수험계획을 짜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수험기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③ 2021년 대비 민법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, 학원에 비치되어 있는 강의계획서와 ‘2020. 6. 26.(금)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법무사 민법1차 공부방법과 2020년 시험 해설특강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④ 마지막으로, 지난 1년 동안 법무사시험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그리고 그동안 복잡하고 어렵고 내용도 많은 본 강사의 민법강의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꼭 합격하십시오!!!!

2020. 6. 23.

박효근 법무사 드림